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 30명, 아시아 정상 향해 출격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18일 개막

광주 17명·전남 13명 참가…畠 정상 도전

김영건·서수연·박승우·유수영 등 금 기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30명의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최근 이천선수촌 삼성관에서 대한민국 선수단과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전을 다짐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은 18개 종목에 선수 214명, 임원 143명 등 총 3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에서는 7개 종목 17명, 전남에서는 7개 종목 13명 등 모두 30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 경쟁에 나선다.

광주는 선수 12명을 비롯해 지도자 2명, 경기파트너 1명, 로터 1명, 생활보조 1명이 참가한다.

선수로는 탁구 김영건·서수연·김성욱, 양궁 김옥금·윤태성, 사격 박승우(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펜싱 김선미(한국전력공사)·최건우(한전KPS)·조예진(광주장애인펜싱협

회), 보치아 최아영(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역도 양지은(광주테크노파크), 육상 정지송(한전KPS)이 출전한다.

김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감독과 신용진 광주장애인체육회 역도 전문체육지도자는 대표팀 코치로 힘을 보탠다. 류영희(광주장애인사격연맹)는 박승우의 로터, 금민지(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는 최아영의 경기파트너, 이서영(광주장애인탁구협회)은 서수연의 생활보조로 함께한다.

전남에서는 사이클 허윤정(한국전력공사), 좌식배구 박신숙·이정임(이상 한국전력공사)·이경자(호반건설)·정옥실(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골볼 김명진(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 이윤리(한전MCS), 휠체어테니스 한성봉(전남장애인테니스협회), 펜싱 백경혜(한전KDN), 배드민턴 진기범·유수영·정겨울(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선수 12명이 출격한다. 이진 전남장애인체육회 골볼 전문체육지도자도 대표팀 코치로 참가한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앞세워 금빛 사냥에 나선다.

광주에서는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



최근 이천선수촌 삼성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한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달리스트 김영건이 선봉에 선다. 김영건은 2022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완치이 차이웃(태국)에게 2-3으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파리 패럴림픽 결승에서 완치이를 3-2로 꺾으며 항저우의 패배를 설욕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안패러게임 정상 탈환을 겨냥한다.

항저우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아시안패러게임 3관왕에 오른 서수연도 다시 금빛 스매시에 나선다.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패러게임 등 주류 국제무대에서 수차례 맞붙은 중국의 류징과 또 한 번 정상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격 박승우에게도 이번 대회는 설욕의 무대다. 항저우 대회에서 불과 0.1점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승우는 올해 창원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고,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패럴림픽 신기록을 포함해 4관왕을 달성했다. 상승세를 이어 주 종목인 R5(공기소총 복사)에서 금빛 명준을 노린다.

2025 광주장애인양궁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김옥금도 정상에 도전한다. 펜싱 김선미와 조예진은 권효경(홍성군청), 조은혜(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와 에페 단체전 메달을 겨냥하고, 항저우 대회 4위에 올랐던 육상 정지송은 생애 첫 아시안패러게임 메달에 도전한다. 양궁 윤태성, 보치아 최아영, 역도 양지은은 첫 아시안패러게임 무대에서 경쟁력을 시험한다. 전남에서는 배드민턴 유수영에게 기대

가 모인다.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과 파리 패럴림픽에서 잇따라 은메달을 획득한 유수영은 남자 휠체어 WH2 세계 최정상급 선수인 일본의 가자와 다유키와 다시 한번 금메달 경쟁에 나선다.

항저우 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정겨울과 사격 이윤리도 메달 색깔을 바꾸겠다는 각오다. 아시안패러게임에 처음 출전하는 배드민턴 진기범 역시 단식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코트에 선다.

광주·전남은 직전 항저우 대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었다. 광주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등 20개를 수확했고, 전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 등 11개를 따냈다. 광주·전남 선수들이 합작한 메달만 31개

에 달했다.

한상득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30명의 선수단 모두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후회 없이 펼칠길 특별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구슬땀을 흘린 전남과 광주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바란다"며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손흥민, 차범근 넘었다… A매치 59골 새 역사

손흥민(34·LAFCE)이 마침내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넘어 한국 남자축구 A매치 최다 득점의 새 주인이 됐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였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72분을 소화하며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한국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역사의 순간은 전반 6분 찾아왔다.

황희찬이 중원에서 찔러준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아크 왼쪽까지 드리블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이 상대 선수의 팔에 맞으면서 프리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직접 나선 손흥민은 수비벽을

우즈베키스탄전 프리킥 선제골…한국 2-0 승리 견인

47년 9개월 만에 男 최다골 경신…151경기서 대기록

패해 오른발로 낮게 깔아 찼고, 공은 골문 오른쪽 하단에 정확히 쏘였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59번째 골이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국가대표 통산 151번째 경기에서 59골을 기록, 차범근 전 감독(136경기 58골)을 제치고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무려 48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다. 차 전 감독이 1978년 12월 17일 방콕 아시안게임 중국전에서 통산 58번째 골을 기록한 이후 47년 9개월 21일,

17461일 만에 새로운 기록의 주인이 탄생했다. 여자 선수를 포함한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은 지소연(수원FC유민)의 76골(182경기)이다.

차범근 전 감독의 또 다른 기록도 이미 손흥민의 몫이 됐다. 지난해 10월 브라질과의 친선경기에서 A매치 통산 137번째 경기에 출전해 차범근·홍명보 전 감독이 보유했던 한국 남자 선수 최다 출전 기록(136경기)을 넘어섰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득

점하지 못해 56골에 머물렀던 손흥민은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에서 다시 골 시계를 돌렸다.

지난달 24일 에바도르전에서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든 데 이어 28일 우루과이전에서도 득점하며 58골로 차범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또 한 번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모레노호 출범 이후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 마침내 한국 남자축구 A매치 최다골 기록을 홀로 차지했다.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의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을 합친 공식전 통산 득점도 301골로 늘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KIA, 11명 계약 완료…이호민 3억5000만원

2R 광병진 1억6000만원·3R 노민혁 1억2000만원에 사인

KIA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2027년 신인 11명이 프로 무대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KIA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11명의 선수와 입단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큰 계약금을 받은 선수는 1라운드 지명 이호민(경남고·내아수)이다. 이호민은 계약금 3억5000만원, 연봉 33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186cm·94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이호민은 장타력과 콘택트 능력을 두루 갖춘 우타 거포 자원이다. 지난 9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에서는 7타점과 5득점을 기록하며 각각 대회 최다 타점과 득점에 이름을 올렸다. 중심타선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우승에도 힘을 보탰다.

마운드의 즉시전력감으로 평가받는 2라운드 광병진(부산과학기술대·투스)은 계약금 1억6000만원, 연봉 3300만원에 계약했다.

191cm·95kg의 체격을 갖춘 우완 광병진은 시속 140km 후반대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강점이다. 구위와 제구력을 고루 갖춘 데다 경기 운영 능력까지 안정적이어서 대졸 투수 가운데 최상위급 자원으로 평가받았다.

3라운드 노민혁(마산용마고·내아수)은 계약금 1억2000만원, 연봉 3300만원에 사인했다.

노민혁은 타격 능력과 빠른 발을 갖춘 데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자원이다. 올해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타격과 타점, 득점, 홈런, 도루 등 5개 부문을 석권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4라운드 이종걸(동원과학기술대·투스)은 9000만원, 5라운드 김선빈(광주제일고·포수)은 7000만원에 각각 계약했다.



이호민

우완 이종걸은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 광병진과 함께 비교적 빠르게 1군 전력에 합류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역 연고 광주제일고 출신 김선빈은 1학년 때부터 주전 미스트를 썼으며 포수로서 수비 능력뿐 아니라 타석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6라운드 김영준(광주고·투스)은 6000만원, 7라운드 이세민(배명고·투스)은 5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김영준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구위를 지닌 불펜 자원으로 꼽히며, 이세민 역시 위력적인 빠른 공과 변화구를 앞세운 우완투수다.

8라운드 소재휘(유신고·내아수)와 9라운드 지민혁(인사고·투스)은 각각 4000만원을 받는다. 소재휘는 준수한 주력을 갖춰 여러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망타자 자원이며, 지민혁은 큰 신장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공을 앞세워 선발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10라운드 이진관(광주동성고·투스)과 11라운드 유재민(휘문고·포수)은 각각 3000만원에 계약했다. 지역 연고 광주동성고 출신 이진관은 빠른 팔 스피드와 간결한 투구 매커니즘을 갖춘 선발과 불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유재민은 안정적인 수비와 송구 능력이 강점인 포수다.

KIA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공격력을 갖춘 내야 자원과 즉시 활용 가능 한 우완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투수를 두루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전남, 마지막 이름 걸고 전국체전 뚫는다

오늘 한전공대서 첫 결단식…선수·임원 등 500여명 한자리

광주·전남 선수단이 각자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필승의지를 다진다.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8일 오후 3시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전남·광주선수단 공동 결단식'을 개최한다.

이번 결단식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앞두고 처음으로 함께 마련한 전국체전 출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

히 제107회 전국체전은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로, 양 지역 체육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결단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송형곤 통합특별시의회의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양 체육회 임원과 회원종목단체장, 육성학교장,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

해 선전을 기원한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참가계획 보고, 선수단 훈령·응원 영상 상영, 선수단기 전달, 격려사와 축사, 양 체육회장 인사말, 선수대표 선서, 격려금 및 체육성금 기탁, 응원공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선수대표 선서에는 전남 근대5종 간판 서창완과 광주 양궁 오예진이 나선다. 두 선수는 광주·전남 선수단을 대표해 정정당당한 승부와 선전을 다짐하며 허나 된 출전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제107회 전국체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은 40년 가까이 이어온 광주·전남 체육이 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뜻깊은 대회"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전남과 광주가 각자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전국체전인 만큼 선수들에게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국체전이 전남과 광주 체육이 함께 걸어온 시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